

# 완주군, 나무은행 참여 활발

### 주민 등에 1059그루 기증받아 향후 녹지공간·숲 조성 활용

소중한 산림자원을 헛두루 쓰거나 버려지는 것을 막고 이를 공공사업 추진에 재활용하기 위해 완주군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 '나무은행'에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12일 완주군은 올해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나무은행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6명(주민 5명, 단체 1개)으로부터 7종 1059주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나무은행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현장에서 베어져야 할 위기에 놓

인 수목 가운데 화귀하고,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보관·관리하고 향후 녹지공간과 숲 조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기증받은 나무는 90% 정도가 소나무로 수령(樹齡)은 7~10년, 수고(樹高)는 2~3m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 주목, 느티나무, 뽕나무, 철쭉 등도 나무은행에 기증됐다.

완주군은 기증된 나무 가운데 상태가 좋은 수목은 숲 가꾸기 사업 등에 즉각 이식하고, 나머지는 3~4년 나무은행에서 관리한 뒤 각종 공사에서의 조경수로 활용하거나 가로수 등으로 식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야를 소유한 주민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완주군 나무은행

으로의 수목 기증을 유도하도록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개인·기관·단체에서 불필요해진 조경수 등 수목에 대하여 군에 기증 신청하면 조경적 가치·작업여건 등을 판단 나무은행 부지로 이식관리한다.

한신호 산림축산과장은 "나무 심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몇 십년 동안 정성들여 기른 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익 목적으로 소중하게 재활용하는 것"이라며 "나무은행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예산 절감에도 적잖은 효과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기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기자

# 무주 관광안내소 신축 이전

### 공용버스터미널 앞으로 접근성 등 최상 조건 갖춰



무주 관광안내소 개소식에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 그리고 관광해설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가 군청 앞에 위치해 있던 관광안내소를 무주 공용버스터미널 앞 반딧불장터공공문화촌 입구로 신축·이전했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개소식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 관광협의회, 제전위원회, 문화원 관계자들과 관련 공무원, 그리고 관광해설사 등 30여 명

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황 군수는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무주의 위상에 걸맞는 관광안내소의 외관과 해설사들의 전문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주를 찾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잘

갖춰진 관광시스템에 한 번 놀라고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에 또 한 번 놀라고 무주인의 아름다움과 재미가 느껴지는 명소들을 둘러보며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다짐해 노력을 해보자"고 말했다.

장소를 옮겨 새롭게 문을 연 무주군 관광안내소는 접근성과 기능성면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공간이 협소해 그동안 홍보물 비치와 단순 제공에 그쳤던 안내소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신축된 무주관광안내소는 64.02㎡ 규모로 디지털 종합관광안내판 등을 갖추고 있으며 반딧불이를 상징하는 캐릭터 '포리와 아로'를 건물 앞에 설치해 이목을 끌고 있다.

아울러 구천동 관광특구 내 관광해설지도 기준에 위치했던 곳 인근에 26.54㎡규모로 신축해 지난 8일 문을 열었다.

/무주=전문선기자

# 완주보건소, 지카바이러스 차단 방역 총력

### 10월까지 흰줄숲모기 방제

완주보건소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4월부터 10월까지 모기 방제에 나서는 내용 위주로 지카 대응 방제 대책을 수립하고, 4월까지의 읍·면·공원 관리사업 등과 협력해 모기 발생 취약구역, 물웅덩이 등 유충 서식지를 없앨 계획이다.

또한 수변지역 같은 모기 발생 취약 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방제를 실시하며 모기서식 취약지인 다중이용공원 15개소에 포충기(유인살충기) 44대를 설치 모기 및 해충구제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본격적인 모기 활동시기인 5월부터 10월까지의 읍면 13개 방역단 28명과 보건소 1개반 3명이 합동 및 자체방역반을 구성해 취약지 및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방역 소독인

연무 소독을 실시한다.

숲 하수구 축산농가 주변 등은 연막 및 잔류분포 작업을 병행 실시하고, 특히 모기유충 구제방역에 중점을 두고 유충구제제를 지속적으로 부약하는 등 완주군 전역에 대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서는 "숲근처의 공원, 축산농가, 하천, 산책로 등 전역에 걸쳐 감염매개체인 흰줄숲모기 방역활동을 강화해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기자

# 진안고원 벚꽃 절정

### 마이산·데미샘길 만개

전국에서 가장 늦게 피는 진안고원 벚꽃이 만개했다.

마이산 벚꽃과 데미샘 벚꽃 등 진안고원의 벚꽃이 12일 만개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벚꽃은 제주도와 진해를 시작으로 5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북상해 하동, 군산을 거쳐 서울까지 개화해 올라간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의도 율령로 벚꽃 마비지에 훨씬 남쪽인 진안의 벚꽃이 개화한다.

올해는 고온의 날씨가 계속되면서 진해와 서울의 주요 벚꽃길은 지난주 이미 절정을 맞이했다.

진안고원 벚꽃도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개화가 빨라졌지만, 오는 주말까지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낼 전망이다.

진안고원 벚꽃길의 대표주자인 마이산 벚꽃길은 수령 2~30년의 벚나무가 일시에 꽃을 피워 화려하다. 마이산 남부진입로에 있는



이산포에서 탐사까지 2.5km의 벚꽃터널이 핑크빛 장관을 이루며 많은 인파로 붐빈다.

사람이 붐비는 곳이 싫다면 데미샘 벚꽃길을 찾으면 된다.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 가는 길에 만 날 수 있는 벚꽃길은 마이산 벚꽃길에 비해 덜 알려져 한산하다.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에서 신암리 장수경계까지 17.2km 구간에 2천여그루의 양벚나무가 심어져 있다.

벚꽃길은 섬진강의 발원지 데미샘으로 이어진다. 백운면 신암리 원신마을에서 3분쯤 올라가면 만나는 데미샘자연휴양림 입구에서 1.19km의 오솔길을 50분 정도 걸으면 데미샘이 나온다.

/진안=우태민기자



# 장수군, 한옥마을서 농특산물 홍보

### 오미자청 등 11종 선봬

장수군은 가공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9일 전주한옥마을 내에 있는 농·특산물판매장(발효전문점 리던)에서 장수군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가졌다.

이날 장수군 한미준과 장수드림협동조합은 사과즙과 오미자청, 엄마미소 쌀과자 11종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장수 농특산물을 홍보했다.

특히 주말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전개, 큰 호응을 얻으며 장수군 가공제품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판촉행사에 참여한 한미준과 장수드림협동조합은 농촌진흥청이 육

성한 소규모 가공창업 사업장으로 한미준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취득 제품을 생산해오고 있으며 특히 엄마미소 쌀과자는 2014년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농식품 가공제품 및 아이디어 가공제품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장수드림협동조합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연계, 장수사마를 활용해 사과즙, 사과잼 등을 생산·유통해오고 있으며 2015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취득했다.

농·특산물판매장 리던(REIDNE)은 지역의 식품산업발전을 위해 장수군과 순창군이 협력해 4월 1일 오픈했으며 1층 판매장과 지하 판매니루 쉽터가 들어서 있다. /장수=고판호기자

# 국립공원

### 장수군, 축사 불법행위 특별점검

장수군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축사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영농철을 맞아 악취 발생 및 가축분뇨 불법이적,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과 환경봉사단으로 구성된 2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달 말까지 각읍·면 이장회의 및 플래카드 게시 등을 통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 미신고 축사시설 사용 및 불법증축여부, 축사 주변 퇴비·액비 아적 및 투기 행위여부, 축산폐수 무단방류,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켜나가는 계획이다.

/장수=고판호기자



### 무주 반딧불장터 야시장

### 먹거리 운영자 추가모집

무주군은 반딧불장터 야시장 먹거리와 체험거리, 특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할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야시장은 이달 23일부터 매주 토요일(하절기 18:00~22:00 / 동절기 17:00~21:00)까지 열릴 예정으로, 먹거리 부문(간식)에서는 한·중·일·양식과 다문화 퓨전 창작개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한 음식을 체험부문에서는 간단한 체험과 함께 상품을 판매하면 된다.

군 산업경제과 산업행정 김성태 담당은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반딧불야시장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관광객들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야시장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반딧불장터 야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맛있게 먹GO! (약초튀김, 전통전복사발 등), 신나게 놀GO! (LED반딧불 만들기, 클레이아트, 캘리그라피), 재밌게 보GO! (포토월, 공연 등), 좋은 것 사GO! (무주군 농·특산물 태권도 인형 등) 외에도 11월(모닥불야시장)부터는 고구마와 밤 감자, 은행, 팥콩, 찹옥수수 등 현장에서 구매해 모닥불에 직접 구워먹을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문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320-2356) /무주=전문선기자

### 진안 정신건강증진센터·농협 생명존중 문화조성 협력 협약

진안군정신건강증진센터와 진안농협협동조합은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 지원으로 군민의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자살예방사업에 공동의 노력하기로 했다.

진안군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올해부터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농민들의 충동적 음독을 막고자 농약관리 보관함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농약을 취급하는 농약사와 각 읍면 농협에 농약을 담아주는 비닐봉투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닐봉투에는 농약음독예상을 위한 문구와 농약 사용 후 농약쓰레기 취급에 대한 권고문이 인쇄되어 있어서 농약을 취급하는 지역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농약을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농약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농협의 절대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농협직원들에게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안=우태민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박산입과  
063-430-2951